

반려동물 상실과 복합 애도: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조절 효과

Pet Loss and Complicated Grief: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정지연¹ · 신지은² · 강영신^{3†}

Ji-Yeon Jung¹ · Ji-Eun Shin² · Young-Shin Kang^{3†}

Abstract

Pets are increasingly becoming vital companions in human life, prompting researchers to focus on understanding the grief experiences of pet owners. Unlike other forms of loss, pet loss often leads to complicated grief, characterized by intense and prolonged sorrow. This is likely due to the comparatively lower societal value placed on the human-pet relationship, which may restrict pet owners from feeling truly understood by other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se “social constraints” significantly hampers the process of recovering from pet loss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omplicated grief. In this study, we hypothesize that the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could intensify the transition from the initial shock of pet loss to complicated grief. The results confirm that pet owners’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play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ock of pet loss and complicated grief. Notably, pet owners experience heightened levels of complicated grief when perceiving greater social barriers and constraints. By highlighting the pivotal role of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in comprehending the experiences of pet loss and grief,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ocial awareness and improvement.

Key words: Complicated Grief, Disenfranchised Grief,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Shock of Loss

요약

반려동물은 점차 인간 삶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반려동물 상실과 이에 따른 애도에 주목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상실은 다른 상실과 달리 대개 그 부적응이 오래 지속되는 복합 애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vs.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하며, 이는 반려인이 자신의 상실 경험을 타인에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기게 만드는 일종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즉, 반려인의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이들의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회복을 저해하고 복합 애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초기 상실 이후 적응을 방해함으로써 그 충격이 복합 애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예상대로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상실 충격으로 인한 복합 애도는 사회적 제약을 크게 지각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 경험과 애도를 이해하는데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인식 변화 및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복합 애도, 박탈된 애도, 지각된 사회적 제약, 상실의 충격

¹ 정지연: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² 신지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3†} (교신저자) 강영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E-mail: lavieenrose@jnu.ac.kr / Tel: 062-530-2652

1. 서론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687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Korea Agency of EPIS, 2022). 사람들은 반려동물과의 활동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Amiot & Bastian, 2015), 이들을 마치 친구나 가족과 다름없이 여긴다(McConnell et al., 2011; Zilcha-Mano et al., 2011, 2012). 실제로, 반려동물은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Hare et al., 2002; Hare & Tomasello, 2005), 결핍된 소속 및 유대 욕구로 인한 고립감도 완화해준다(Aydin et al., 2012). 즉, 반려동물은 인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Woo & Kim, 2023).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한 비인간 생명체이며, 이들과의 관계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적응과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McConnell et al., 2011).

하지만 대부분 반려동물의 수명은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그 때문에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최근 연구자들은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이에 대한 애도에 주목하고 있다(e.g., Leonhardt-Parr & Rumble, 2022; Wong et al., 2017). 상실(loss)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에게 더는 가까이할 수 없게 되거나 가치 있는 일/목적 등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Carlson & Blackwell, 1978). 따라서 함께하던 반려동물의 죽음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큰 상실 경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상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애도(grief)다. 애도는 중요한 대상을 잃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강렬하고 복합적인 감정으로, 애도자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슬픔, 외로움, 두려움, 분노, 희망의 상실 등을 경험한다(Burnett et al., 1997; Hwang et al., 2014; Parkes, 1970). 그동안 상실과 애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람과 사람 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반응도 이와 유사할까? 최근 이를 검토한 몇몇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Lavorgna & Hutton(2018)은 반려동물과 사람의 상실 경험을 비교한 바 있다. 연구자들이 반려동물과

사람을 상실한 집단 각각의 심리적 반응을 비교했을 때, 두 집단 참가자들이 보고한 애도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의 죽음이 친밀한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만큼 큰 슬픔을 유발하는 상실 경험임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대상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상실의 충격을 경험한다(Hwang et al., 2014). 큰 슬픔과 절망, 혼란을 느끼며, 상실에 대해 직면하기보다는 주로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Boelen et al., 2006). 하지만 이는 큰 상실의 충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부정적인 증상들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Bonanno et al., 2002; Maercker & Znoj, 2010).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상실을 통해 긍정적인 의미를 깨닫고 삶의 성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Lee & Kang, 2017; Tedeschi & Calhoun, 2004). 비록 고통스럽지만, 상실 경험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Im, 2013). 반면,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실의 충격에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상실의 충격이 심할수록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수준이 높아지며, 이러한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Choi & Ahn, 2013; Packman et al., 2011; Park et al., 1996; Simon et al., 2007).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 결과는 상실의 충격에 따른 애도 과정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애도는 분노, 우울, 죄책감 등이 혼재되기 쉽고(Adrian et al., 2009), 상실 후 시간이 지나도 슬픔이 경감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적응이 장기간 지속되는(Lichtenthal et al., 2004; Prigerson et al., 1995) 특징을 보인다. 이를 일반적인 애도와 구분하여 ‘복합’ 애도(complicated grief)라고 한다. 복합 애도는 상실 후 충격과 불신, 분노, 무감각 등이 섞인 고통스러운 상태로, 그 부적응이 앞서 언급한 6개월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치료가 요구된다(Maercker & Znoj, 2010).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복합 애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복합 애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인간에 대한 상실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밝혀진 개인차 변인으로는 성별, 상실의 예측 가능성과

원인, 상실 대상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Davis et al., 1998; Kessler & McLeod, 1984; Miyabayashi & Yasuda, 2007).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대체로 부정적인 반추를 많이 하며 상실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을 더 자주 경험하는 모습을 보인다(Wrobel & Dye, 2003). 또한 사람들은 사고, 자살, 타살 등 예측하지 못한 상실을 경험했을 때(Davis et al., 1998; Habarth et al., 2017),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 등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의 대상을 상실했을 때 더 극심한 애도를 보고한다(Gage & Holcomb, 1991).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반려동물의 상실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보다 더 큰 복합 애도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Eckerd et al., 2016). 특히 반려동물이 유일한 동거 가족인 1인 가구의 경우, 그 상실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고립감, 우울 등의 부적응은 더욱 심각하다(Gosse & Barnes, 1994; Habarth et al., 2017; Reisbig et al., 2017). 또한 복수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다 하더라도 상실한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 다른 반려동물로 인해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부정적인 반추를 경험하게 되어 부적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Boelen et al., 2006).

이처럼 반려인들이 겪는 복합 애도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도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지각된 사회적 제약(perceived social constraints)’을 들 수 있다.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애도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Morley & Fook, 2005; Reisbig et al., 2017). 반려동물은 수평적이기보다는 부차적인 존재로, 이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깊이나 유대가 사람과의 그것보다 덜하다고 여기는 것이다(Wong et al., 2017). 따라서 사람들은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애도가 사람을 상실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간주한다(Bussolari et al., 2018; Packman et al., 2014). 하지만 사람 간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기대는 반려인에게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충분한 애도를 저해한다(Bussolari et al., 2018; Habarth et al., 2017).

이처럼 사회적 가치나 규범 등의 외부 요소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나 선택이 제한된다는 주관적 인식을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라고 한다(Juth et al., 2015; Lepore

et al., 1996; Lepore & Helgeson, 1998).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대표적인 예가 반려동물의 상실임이 밝혀진 바 있다(e.g., Humphrey, 2009; Reisbig et al., 2017).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은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애도에 대해 충분히 공감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Cordaro, 2012; Habarth et al., 2017; Wong et al., 2017). 예를 들어, Reisbig et al.(2017)의 연구 참가자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되잖아.’, ‘빨리 잊는 것이 나아.’ 등과 같이 자신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는 지각된 사회적 제약 반응을 자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괜찮을 것이라며 반려인을 위로하는 반응은 흔하지만, 이로 인해 반려인의 고립감과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Toray, 2004). 더불어 Wong et al.(2017)의 연구에서도 반려인이 상실의 슬픔에 대해 말했을 때, 가족과 지인들은 빨리 잊으라고 한다거나 심지어는 왜 이렇게 슬퍼하냐며 비난을 늘어놓았다. 즉,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보다 열등하게 여기고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과소평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Cordaro, 2012).

특히 상실 후 회복과 적응은 해당 경험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크게 좌우된다. 사회적 반응이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개방할 때 타인으로부터 받는 위로나 공감 혹은 비난, 거부 등의 다양한 반응을 의미한다(Ullman, 2000). 이와 관련하여 Ullman(2007)은 외상 후 적응에 중요한 요소는 외상 경험에 대한 개방 자체보다 그에 따른 타인의 반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반응과 이것이 상실 후 적응을 어떻게 돕는지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왔다(e.g., Han & Yoo, 2022; Rodriguez & Kelly, 2006). 하지만 긍정적 사회적 반응보다 부정적 반응의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적응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Ullman & Filipas, 2001),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은 행복감 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Lee, 2019). 이상의 결과는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정적 반응인 사회적 제약에 대한 지각이 반려동물 상실 후 심리적 적응을 방해하는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Bussolari et al.(2018)은 지각된 사회적 제약

이 높을수록 반려인의 회복이 어려우며 복합 애도와 같은 부적응을 경험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애도 과정에서 사회적 제약을 높게 지각할수록 상실 경험에 관한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게 된다. 상실을 직면하기보다 회피하게 되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지를 찾지 않게 됨으로써 죄책감, 분노, 수치심을 내재화되게 된다(Archer & Winchester, 1994). 이와 같은 부적응적 대처와 증상이 지속되면, 지각된 사회적 제약 반응은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복합 애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Bussolari et al., 2018; Habarth et al., 2017). 이상을 토대로 애도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변인으로 기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반려동물 상실시 주위 사람들과 상실에 대한 경험과 지지를 얻지 못하는 애도 과정을 일컬어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라고 한다(Humphrey, 2009). 박탈된 애도는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애도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애도 반응으로(Doka, 2008),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e.g., Juth et al., 2015; Wortman & Boerner, 2007). 이에 반려동물의 상실은 박탈된 애도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Humphrey, 2009).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한다(Packman et al., 2014). 이들이 대체로 전문가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회피하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Wong et al., 2017).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애도 과정이 부적절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됨으로써 수치심과 분노, 죄책감을 느끼고(Wong et al., 2017), 나아가 심한 고립감을 비롯한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Packman et al., 2012).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상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상실로 인한 충격과 복합 애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최근 반려동물 애도에 관한 국내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e.g., Han & Yoo, 2022; Jung & Ahn, 2020; Mo, 2015), 이를 지각된 사회적 제약과 함께 살펴본 시도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국외 질적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e.g., Packman et a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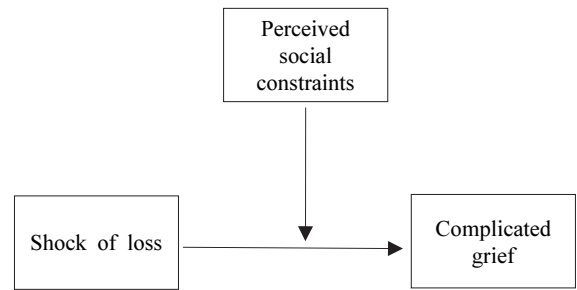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model

Reisbig et al., 2017). 이에 반려동물 상실을 대표하는 특성인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역할과 중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그동안 밝혀진 상실 관련 요인(예, 상실 원인과 예측 가능성 등)들에 비해 애도에 대한 개입이나 중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 간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제약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높은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상실의 충격으로 인한 복합 애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애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상실 후 회복을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선정에 관한 몇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실 경험에 대한 경과 시간이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후 최소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에 한하였다. 왜냐하면 대개 상실 후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부적응적 증상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다(Bonanno et al., 2002). 이에 애도 연구자들은 일반 애도와 복합 애도를 구분할 때 6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Lichtenthal et al., 2004; Maercker & Znoj, 2010). 이와 유사하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에서도 아동은 6개월, 성인은 1년 이상 애도로 인한 부적응적인 증상이 지속될 경우 지

속성 복합 사별 장애로 진단을 내린다. 둘째, 상실 대상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반려동물 중 반려인과의 유대와 친밀감이 높으며(Chur-Hansen, 2010),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Korea Agency of EPIS, 2022)에 대한 상실 경험에 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및 대학교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홍보, 지인을 통한 눈팅이 표집을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자들에게는 URL 링크로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총 230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25명을 제외한 205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윤리규정에 따른 연구 목적, 설문 참여 중단 가능 여부, 총 문항 수와 소요 시간, 비밀보장 등 전반적인 연구 과정과 절차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친 후 이루어졌다.

2.2. 측정도구

2.2.1. 상실의 충격

상실로 인한 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Hwang et al.(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성인용 애도 척도(Mourning Scale for Adult: MSA)를 사용하였다. 이는 애도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척도로 상실의 충격과 혼란 9문항, 상실의 고통 12문항, 삶의 회복과 성장 10문항의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 초기 상실 발생 시 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상실의 충격과 혼란에 대한 9문항만을 활용하였고, 상실 경험 이후의 반응을 측정하는 상실의 고통과 삶의 회복과 성장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상실 당시의 심리적 충격을 회상하여 그 정도를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보고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상실의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문항은 ‘나에게 고인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등 사람에게 대한 상실에 대해 응답하게 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목적에 맞게 ‘나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이다’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상실로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Hwang et al.(2014)의 연구에서 상실의 충격과 혼란의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2.2.2. 복합 애도

반려동물 상실에 따른 애도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복합 애도 척도(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revised; ICG-R)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Prigerson & Jacobs(2001)가 개발하고 조명숙(2012)이 번안하였다. Prigerson & Jacobs(2001)은 분리 불안으로 인한 고통과 외상적 고통의 두 하위요인을 나누었으며, Cho(2012)는 통합시도의 실패와 상실의 충격의 두 하위요인을 나누는 바 있다. 참가자들은 총 30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원 문항은 ‘나는 떠난 그 사람을 갈망하고 그리워한다’ 등 사람에게 대한 애도를 다루지만, 본 연구는 목적에 맞게 ‘나는 떠난 반려동물을 갈망하고 그리워한다’와 같이 반려동물의 상실과 관련된 용어로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문항간 내적 합치도는 Prigerson & Jacobs(2001)의 연구에서 .95, Cho(2012)의 연구에서 .99,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2.2.3. 지각된 사회적 제약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애도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주관적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Packman et al.(2011)의 사회적 제약 척도(Social Constraints Measure: SC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Lepore & Ituarte(1999)가 암 진단을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지지를 구하고자 할 때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듯한 심리적 제약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Packman et al.(2011)은 이를 반려인의 상실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정식 허가를 받아 한국어 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사용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 심리학 박사 1인이 해당 척도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원 문항과 비교해 보는 절차를 위해 이중 언어자인 상담심리 전공 박사 1인과 영어 및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1인의 역 번안 과정을 거쳤다. 이어서 원 문항과 역 번역한 문항의 의미가 일치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번역자 간 교차 평정을 진행하였으며, 일치하지 이루어지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저자들과 상담심리학 전공자 4명으로 구성된 초점 집단 논의를 통해 최종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에 대해 4점(1 = 전혀

없다, 4 = 자주 있다)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당신의 문제를 사소하게 취급했습니까?’,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혼자 삭여야 한다고 느끼게 했습니까?’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Packman et al.(2011)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94로 나타났다.

2.3. 연구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 23.0과 PROCESS macro 4.2 (Hayes, 2017)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및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및 상실 관련 정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일원 분산분석과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Hayes(2017)의 PROCESS Macro 4.2 (Model 1)를 활용하였다.

3. 결과

3.1. 인구통계학적 및 상실 관련 정보

본 연구 참가자 205명 중 남성은 28명(13.7%), 여성은 177명(86.3%)이었다. 가족 등 동거인과 거주하는 경우가 157명(7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48명(23.4%)이었다. 반려동물의 유형은 개 172명(83.9%), 고양이 33명(16.1%)이었다. 반려동물 상실 후 경과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 138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4년 미만’ 36명(17.5%), ‘4~6년 미만’ 16명(7.7%), ‘6년 이상’ 14명(7%) 순이었다. 반려동물 상실의 예측 가능성은 ‘갑작스러웠음’이 114명(55.6%)이었고, ‘예측 가능했음’ 91명(44.4%)이었다. 반려동물 상실의 원인은 ‘급성 질병’이 66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화’ 47명(22.9%), ‘만성 질병’ 44명(21.5%), ‘사고’ 34명(16.6%) ‘안락사’ 14명(6.8%) 순이었다. 다른 반려동물 동거 여부는 ‘없

음’이 105명(51.2%)이었고, ‘있음’이 100명(48.8%)이었다. 상실 이후 새로운 반려동물의 입양 여부는 ‘없음’이 138명(67.3%)이었고, ‘있음’이 67명(32.7%)이었다.

3.2. 인구통계학적 및 상실 관련 정보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분석

3.2.1.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차이

먼저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차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상실의 충격($t(203) = -2.89, p = .004$)과 복합 애도($t(203) = -2.63, p = .00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여성(상실의 충격: $M = 33.27, SD = 5.35$, 복합 애도: $M = 81.58, SD = 24.33$)이 남성(상실의 충격: $M = 30.04, SD = 6.46$, 복합 애도: $M = 68.00, SD = 31.30$)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실 충격과 복합 애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111$). 다음으로 거주 형태에 따라 복합 애도($t(203) = 2.57, p = .01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M = 87.98, SD = 29.21$)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들($M = 77.21, SD = 24.12$)보다 더 높은 복합 애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상실의 충격($p = .082$) 및 지각된 사회적 제약($p = .177$)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2.2. 상실 관련 정보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상실 관련 정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상실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 상실의 충격($t(203) = -3.46, p < .001$)과 복합 애도($t(203) = -3.08, p = .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실이 갑작스러웠던 집단(상실의 충격: $M = 34.01, SD = 5.18$, 복합 애도: $M = 84.58, SD = 27.40$)이 예측 가능했던 집단(상실의 충격: $M = 31.35, SD = 5.80$, 복합 애도: $M = 73.66, SD = 22.18$)보다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상실의 예측 가능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67$). 다음으로, 다른 반려동물과 동거 여부에 따라 지각된 사회적 제약($t(203) = 2.21, p = .028$)과 복합 애도($t(203) = 2.62, p = .009$)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지각된 사회적

제약: $M = 33.50$, $SD = 10.50$, 복합 애도: $M = 84.49$, $SD = 25.22$)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지각된 사회적 제약: $M = 30.40$, $SD = 9.61$, 복합 애도: $M = 75.20$, $SD = 25.52$)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제약과 복합 애도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상실의 충격은 다른 반려동물 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122$). 다음으로 상실 이후에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 여부에 따라 상실의 충격($t(203) = -2.99$, $p = .003$), 지각된 사회적 제약($t(203) = -2.83$, $p = .005$), 복합 애도($t(203) = -2.11$, $p = .036$)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새롭게 반려동물을 입양한 집단(상실의 충격: $M = 34.48$, $SD = 4.37$, 지각된 사회적 제약: $M = 34.75$, $SD = 10.46$, 복합 애도: $M = 85.12$, $SD = 24.71$)이 그렇지 않은 집단(상실의 충격: $M = 32.03$, $SD = 5.97$, 지각된 사회적 제약: $M = 30.54$, $SD = 9.74$, 복합 애도: $M = 77.12$, $SD = 25.91$)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실의 충격, 지각된 사회적 제약, 복합 애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상실의 원인에 따라 복합 애도($F(4,200) = 3.84$, $p =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성 질병으로 상실한 집단($M = 88.62$, $SD = 27.43$)이 노화로 상실한 집단($M = 72.83$, $SD = 22.36$)보다 더 높은 복합 애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실의 충격($p = .069$), 지각된 사회적 제약($p = .156$)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3. 주요 변인들 간 상관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Table 1.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N=205)

Variable	M(SD)	1	2	3
1. Shock of loss	32.83(5.60)	-		
2.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31.91(10.15)	.34***	-	
3. Complicated grief	79.73(25.74)	.64***	.62***	-

*** $p < .001$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예상대로, 상실의 충격은 지각된 사회적 제약($r = .34$, $p < .001$)과 복합 애도($r = .64$,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복합 애도와 지각된 사회적 제약($r = .62$, $p < .001$)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3.4.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조절 효과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의 관계가 지각된 사회적 제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2 (Hayes, 2017)를 활용하였다. 종속 변수에는 복합 애도가, 독립 변수에는 상실의 충격이, 조절 변수에는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투입되었다. 부스트랩(bootstrap) 표본수는 5,000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절 효과의 분석과 조건부 효과 분석 결과를 Table 2, 3과 Fig. 2에 각각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합 애도에 대한 상실의 충격과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주효과가 유의미했다(상실의 충격: $b = 2.34$, $SE = .22$, $p < .001$, $CI_{95\%} = [1.90, 2.78]$, 지각된 사회적 제약: $b = 1.12$, $SE = .12$, $p < .001$, $CI_{95\%} = [0.88, 1.36]$). 또한 예상대로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수준은 상실의 충격과

Table 2.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ock of loss and complicated grief (N=205)

	b	SE	t	p	LLCI	ULCI
Shock of loss(A)	2.34	.22	10.45***	.000	1.90	2.78
Perceived social constraints(B)	1.12	.12	9.23***	.000	.88	1.36
Shock of loss ×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04	.02	2.15*	.033	.00	.09

D.V. Complicated grief * $p < .05$, *** $p < .001$

Table 3. Conditional effect of social constrai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ock of loss and complicate grief (N=205)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b	SE	t	p	LLCI	ULCI
-1SD	1.89	.27	7.09***	.000	1.36	2.41
Mean	2.34	.22	10.45***	.000	1.90	2.78
+1SD	2.79	.34	8.13***	.000	2.12	3.4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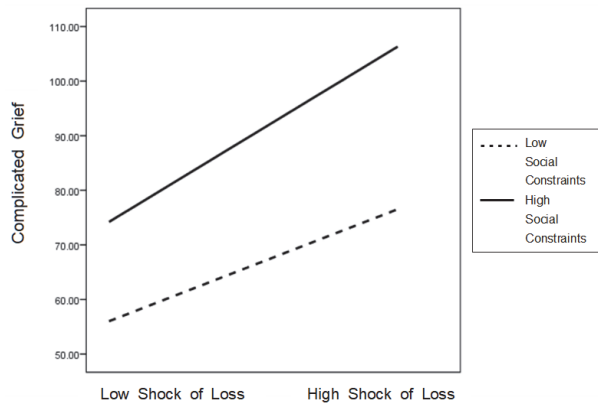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constraints

복합 애도와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4$, $SE = .02$, $p = .033$, $CI_{95\%} = [0.00, 0.09]$). 구체적으로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낮은(-1 SD) 사람의 경우, 상실의 충격이 복합 애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b = 1.81$, $SE = .29$, $p < .001$, $CI_{95\%} = [1.24, 2.38]$),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높은(+1 SD) 사람의 경우 이 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b = 2.79$, $SE = .34$, $p < .001$, $CI_{95\%} = [2.12, 3.47]$).

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제3의 변인에 기인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앞선 결과를 토대로 성별, 거주형태, 상실의 예측 가능성, 다른 반려동물과의 동거여부,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여부, 상실의 원인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통제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했을 때, 여전히 복합 애도에 대한 상실의 충격과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며(상실의 충격: $b = 2.23$, $SE = .23$, $p < .001$, $CI_{95\%} = [1.78, 2.69]$), 지각된 사회적 제약: $b = 1.08$, $SE = .12$, $p < .001$, $CI_{95\%} = [0.84, 1.32]$),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조절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4$, $SE = .02$, $p = .040$, $CI_{95\%} = [0.00, 0.85]$). 즉,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의 정적 관계를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조절하여 그 관계를 더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낮은(-1 SD) 사람의 경우, 상실의 충격이 복합 애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 = 1.79$, $SE = .27$, $p < .001$, $CI_{95\%} = [1.25, 2.33]$),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높은(+1 SD) 사람의 경우 상실의 충격이 복합 애도와와의 정적 관계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 차이를 보였다($b = 2.68$, $SE = .35$, $p < .001$, $CI_{95\%} = [1.99, 3.37]$).

4. 논의

최근 반려동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상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e.g., Cleary et al., 2021; Leonhardt-Parr & Rumble, 2022; Wong et al., 2017).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애도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상실이 수반하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인 지각된 사회적 제약(Reisbig et al., 2017; Wong et al., 2017)에 초점을 맞추고, 상실의 충격에 따른 복합 애도가 지각된 사회적 제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지각된 사회적 제약 수준은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상실에 따른 복합 애도는 사회적 제약을 높게 지각할 때, 즉 해당 상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이에 기반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학적 정보에 해당하는 성별과 거주 형태에 따라 주요 변인과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높은 수준의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상실 후 부적응을 자주 경험하며 높은 부정정서를 보인다(Nolen-Hoeksema et al., 1997)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관되며, 특히 여성이 상실 경험에 취약한 대상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혼자 거주하는 집단은 동거인과 거주하는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복합 애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실로 인한 회복이 어려워지며 심지어 심리적 부적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실 관련 정보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그중 상실을 갑작스럽게 경험했던 집단이 예측 가능했던 집단 보다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상치 못한 죽음이 기존의 신념 체계를 붕괴하고 혼란을 유발한다는 주장(Kaltman & Bonanno, 2003)과 일맥상통하는 바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실의 원인에 따라 노화보다 급성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복합 애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노화로 인한 죽음은 심리적 준비가 가능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은 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며(Walter & McCoyd, 2009)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적응이 심화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반려인이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살거나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한 경우,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들은 특히나 ‘다른 반려동물로 잇어’,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괜찮아질거야’와 같은 반응을 유독 자주 경험하였다(Reisbig et al., 2017). 이와 같은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반려동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다른 대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Leonhardt-Parr & Rumble, 2022)에서 타인이 애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살거나 새로운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복합 애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상실 경험 후 남은 반려동물이 떠난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 단서로 작용하여 복합 애도가 더 심해질 수 있음에도 지각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상실감과 애도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가 더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Habarth et al.(2017)은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높을수록 반려인이 복합 애도와 같은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다른 반려동물의 존재가 사회적 지지 자원의 역할을 하며 오히려 심각한 애도를 완화한다고 주장한다(Jung & Ahn, 2020; Morley & Fook, 2005; Wells, 2009). 반려동물은 역경에 처한 반려인에게 위로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나(Zilcha-Mano et al., 2012)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복합 애도가 심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실 대상이 다른 반려동물과 엄연히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실 대상으로 인한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상실한 대상을 다른 반려동물로 빨리 잇으라는 등의 지각된 사회적 제약 반응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살거나 새롭게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과의 단편적인 차이를 살펴보았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 제약과 복합 애도의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서 지각된 사회

적 제약이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의 관계를 심화시킴을 보여준다. 즉, 낮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의 관계를 완화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상실의 충격이 더 큰 복합 애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지각된 사회적 제약은 상실의 충격이 충분한 애도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함과 동시에 복합 애도를 심화시킴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역할과 유의성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 Wong et al.(2017)은 주로 반려인이 타인으로부터 애도를 인정받지 못할 때, 극심한 외로움과 수치심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이 겪는 애도 과정이 부적절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심지어 반려인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를 회피하게 됨으로써 우울, 불안, 신체화를 경험하며 복합 애도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Clark, 1993; Habarth et al., 2017; Tait & Silver, 1989)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처럼 지각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부적응적 애도를 박탈된 애도라 하는데, 여러 연구에서는 박탈된 애도로 인한 반려인의 어려움을 자주 보고하였지만 주로 사례를 보고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e.g., Packman et al., 2014; Reisbig et al., 2017). 하지만 본 연구는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박탈된 애도 과정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반려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박탈된 애도가 반려동물 애도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사회적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반려동물의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Reisbig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박탈된 애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과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각된 사회적 제약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이해와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탈된 애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대개 박탈된 애도는 지각된 사회적 제약 반응에 의해 유발되므로,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애도를 과소평가하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급격

히 성장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고려할 때 반려인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회복에 있어 효과적인 것이다(Wong et al., 2017). 또한, 사회적 지지를 구하기 힘들어하는 반려인들에게 지각된 사회적 제약이 적은 환경에서 애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비슷한 경험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e.g., 무지개다리 너머)를 통해 추모사를 게시하거나 서로 위로하며 회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지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서로의 애도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반려인이 애도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의 반려동물은 반려묘보다는 반려견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표본을 모든 반려동물 상실에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르는 반려동물의 유형에 따라서 주요 변인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에 따른 상실의 충격과 복합 애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별을 보다 고르게 표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반려동물 상실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 참가자의 대다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이 되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된 사람들은 주로 상실 경험에 대해서 개방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지받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지각된 사회적 제약 수준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 방법을 통해 집단을 모집함으로써 연구 진행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서 상실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상실의 충격, 지각된 사회적 제약, 복합 애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참여자 중에는 반려동물을 상실한 후 5년 이상이 지난 참여자(7.3%)들도 있기 때문에 상실한 당시를 회상하게 하여 초기 상실의 충격을 측정하는 등의 응답 방식은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상실의 경과 기간에 따라서 애도 과정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Elizabeth &

Renee, 2008, 2019), 상실 후 특정 시점마다 설문지를 수집하여 상실의 충격, 지각된 사회적 제약, 복합 애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각된 사회적 제약을 측정함에 있어 Lepore & Ituarte(1999)가 개발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Packman et al.(2011)이 반려동물에게 맞게 수정된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반려동물의 상실에 초점을 맞춘 일관된 척도가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상실에 맞춘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제약을 통해서 박탈된 애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측정을 위해 박탈된 애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Adrian, J. A., Deliramich, A. N., & Frueh, B. C. (2009).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humans' response to the death of pets/animal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73(3), 176-187.
- Amiot, C. E., & Bastian, B. (2015). Toward a psychology of human-animal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41(1), 6-47.
- Archer, J., & Winchester, G. (1994). Bereavement following death of a pet. *Th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5(2), 259-271.
- Aydin, N., Krueger, J. I., Fischer, J., Hahn, D., Kastenmuller, A., Frey, D., & Fischer, P. (2012). "Man's best friend:" How the presence of a dog reduces mental distress after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446-449.
- Boelen, P. A., van den Bout, J., & van den Hout, M. A. (2006). Negative cognitions and avoidance in emotional problems after bereavement: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 1657-1672.
- Bonanno, G. A., Wortman, C. B., Lehman, D. R., Tweed, R., Haring, M., Sonnega, J., Carr, D., & Nesse, R. (2002). Resilience to loss and chronic grief: A

- prospective study from preloss to 18-months post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150-1164.
- Burnett, P., Middleton, W., Raphael, B., & Martinek, N. (1997). Measuring core bereavement phenomena. *Psychological Medicine*, 27(1), 49-57.
- Bussolari, C., Habarth, J. M., Phillips, S., Katz, R., & Packman, W. (2018). Self-compassion, social constraints, and psychosocial outcomes in a pet bereavement sample.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82(3), 389-408.
- Carlson, C. E., & Blackwell, B. (1978).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 (2nd ed.). Lippincott.
- Cho, M. S. (2012). *The effect of meaning making and centrality of event on pathological grief symptoms of bereaved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Korea.
- Choi, S. J., & Ahn, H. 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reconstruction in response to loss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1), 323-341.
- Chur-Hansen, A. (2010). Grief and bereavement issues and the loss of a companion animal: People living with a companion animal, owners of livestock, and animal support workers. *Clinical Psychology*, 14(1), 14-21.
- Clark, L. F. (1993). Stress and the cognitive-conversational benefits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1), 25-55.
- Cleary, M., West, S., Thapa, D. K., Westman, M., Vesik, K., & Kornhaber, R. (2021). Grieving the loss of a pet: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 *Death Studies*, 46(9), 1-12.
- Cordaro, M. (2012). Pet loss and disenfranchised grief: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4(4), 283-294.
- Davis, C. G., Nolen-Hoeksema, S., & Larson, J. (1998). Making sense of loss and benefitting from the experience: Two construals of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61-574.
- Doka, K. J. (2008). Disenfranchised grief in historical and cultural perspective. In M. S. Stroebe, R. O. Hansson, H. Schut, & W. Stroebe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pp. 223-24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ckerd, L. M., Barnett, J. E., & Jett-Dias, L. (2016). Grief following pet and human loss: Closeness is key. *Death Studies*, 40(5), 275-282.
- Elizabeth, C. P., & Renee, B. (2019). *The Grief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orkbook*. (Kang, Y. S., & Lee, D. H. Trans.). Sapyou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Gage, M. G., & Holcomb, R. (1991). Couples' perception of stressfulness of death of the family pet. *Family Relations*, 40(1), 103-105.
- Gosse, G. H., & Barnes, M. J. (1994). Human grief resulting from the death of a pet. *Anthrozoos*, 7(2), 103-112.
- Habarth, J., Bussolari, C., Gomez, R., Carmack, B. J., Ronen, R., Field, N. P., & Packman, W. (2017). Continuing bond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a recently bereaved pet loss sample. *Anthrozoos*, 30(4), 651-670.
- Han, S. A., & Yoo, S. K.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 loss grief and psychological growth: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eaning reconstruction and positive social reaction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4(2), 623-642.
- Hare, B., Brown, M., Williamson, C., & Tomasello, M. (2002). The domestication of social cognition in dogs. *Science*, 298(5598), 1634-1636.
- Hare, B., & Tomasello, M. (2005). Human-like social skills in dog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9), 439-444.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wang, J. Y., Kim, M. O., & Cheon, S. M.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ourning scale for adul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1(3), 537-560.
- Humphrey, K. M. (2009). *Counseling strategies for loss*

- and grief*.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Im, S. Y.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cess leading to posttraumatic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4), 745-772.
- Jung, M. J., & Ahn, H. N. (2020). Adult's pet euthanasia experience and complicated grief: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isk fact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1(2), 269-289.
- Juth, V., Smyth, J. M., Carey, M. P., & Lepore, S. J. (2015). Social constraints are associated with negative psychological and physical adjustment in bereavement.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 Being*, 7(2), 129-148.
- Kaltman, S., & Bonanno, G. A. (2003). Trauma and bereavement: Examining the impact of sudden and violent death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2), 131-147.
- Katcher, A., Rosenberg, M. (1979). Euthanasia and the management of the client's grief. *Compendium on Continuing Education*, 1(12), 887-891.
- Kessler, R. C., & McLeod, J. D. (1984). Sex difference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5), 620-631.
- Koh, H. G., Park, J. Y., & Kang, Y. S. (2021). Losses and disenfranchised grief of post-prostitute women: A phenomenological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3(4), 1739-1771.
- Korea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22). *A public survey on companion animal protection*.
- Lavorgna, B. F., & Hutton, V. E. (2018). Grief severity: A comparison between human and companion animal death. *Death Studies*, 43(8), 521-526.
- Lee, G. H. (2019). Social exclusion, raising companion anima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 exploratory study.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22(1), 3-14.
- Lee, H. J., & Kang, Y. S.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reappraisal and spiritual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ef reac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6), 623-643.
- Leonhardt-Parr, E., & Rumble, B. (2022). Coping with animal companion loss: A thematic analysis of Pet bereavement counselling.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00302228211073217.
- Lepore, S. J., & Helgeson, V. S. (1998). Social constraints, intrusive thoughts, and mental health after prostate cance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1), 89-106.
- Lepore, S. J., Silver, R. C., Wortman, C. B., & Wayment, H. A. (1996). Social constraints, intrusive thought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bereaved m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71-282.
- Lepore, S. J., & Ituarte, P. H. G. (1999). Optimism about cancer enhances mood by reducing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Cancer Research, Therapy and Control*, 8(3), 165-174.
- Lichtenthal, W. G., Gruess, D. G., & Prigerson, H. G. (2004). A case for establishing complicated grief as a distinct mental disorder in DSM-V.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6), 637-662.
- Maercker, A., & Znoj, H. (2010). The younger sibling of PTS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1), 5558-5567.
- McConnell, A. R., Brown, C. M., Shoda, T. M., Stayton, L. E., & Martin, C. E. (2011). Friends with benefits: on the positive consequences of pet owner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6), 1239-1252.
- Miyabayashi, S., & Yasuda, A. (2007). Effects of loss from suicide, accidents, acute illness and chronic illness on bereaved spouses and parents in Japan: Their general health, depressive mood, and grief react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1(5), 502-508.
- Mo, H. J. (2015) Grieving after the loss of companion animals - Symptoms of pet loss. *Human Beings, Environment and Their Future*, 15, 91-120.
- Morley, C., & Fook, J. (2005). The importance of pet loss and some implications for services. *Mortality*, 10(2), 127-143.

- Nolen-Hoeksema, S., McBride, A., & Larson, J. (1997).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bereaved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4), 855-862.
- Packman, W., Carmack, B. J., Katz, R., Carlos, F., Field, N. P., & Landers, C. (2014). Online survey as empathic bridging for the disenfranchised grief of pet los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9*(4), 333-356.
- Packman, W., Carmack, B. J., & Ronen, R. (2012). Therapeutic implications of continuing bonds expressions following the death of a pet.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4*(4), 335-356.
- Packman, W., Field, N. P., Carmack, B. J., & Ronen, R. (2011). Continuing bond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pet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6*(4), 341-357.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Parkes, C. M. (1970). The first year of bereavemen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action of London widows to the death of their husbands. *Psychiatry, 33*(4), 444-467.
- Prigerson, H. G., & Jacobs, S. C. (2001). Traumatic grief as a distinct disorder: A rationale, consensus criteria, and a preliminary empirical test.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613-64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rigerson, H. G., Frank, E., Kasl, S. V., Reynolds, C. F., Anderson, B., & Zubenko, G. S. (1995). Complicated grief and bereavement related depression as distinct disorders: Preliminary empirical validation in elderly bereaved spous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1), 22-30.
- Reisbig, A. M., Hafen Jr, M., Siqueira Drake, A. A., Girard, D., & Breunig, Z. B. (2017). Companion animal death: A qualitative analysis of relationship quality, loss, and coping.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75*(2), 124-150.
- Rodriguez, R. R., & Kelly, A. E. (2006). Health effects of disclosing secrets to imagined accepting versus nonaccepting confida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9), 1023-1047.
- Simon, N. M., Shear, K. M., Thompson, E. H., Zalta, A. K., Perlman, C., Reynolds, C. F., Frank, E., Melhem, N. M., & Silowash, R. (2007).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sychiatric comorbidity in individuals with complicated grief. *Comprehensive Psychiatry, 48*(5), 395-399.
- Tait, R., & Silver, R. C. (1989). Coming to terms with major negative life events.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351-382). Guilford.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oray, T. (2004). The human-animal bond and loss: Providing support for grieving cli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3), 244-259.
- Ullman, S. E. (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3), 257-271.
- Ullman, S. E. (2007). Relationship to perpetrator, disclosure, social reactions, and PTSD symptoms in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Research, Treatment, and Program Innovations of Victims, Survivors, and Offenders, 16*(1), 19-36.
- Ullman, S. E., & Filipas, H. H. (2001). Predictors of PTSD symptom severity and social reactions in sexual assault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2), 369-389.
- Walter, C. A., & McCoyd, J. L. M. (2009). *Grief and Loss across the Lifespan: A Biopsychosocial Perspective*. Springer.
- Wells, D. L. (2009). The effects of animals on huma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Issues, 65*(3), 523-543.
- Wong, P. W., Lau, K. C., Liu, L. L., Yuen, G. S., & Wing-Lok, P. (2017). Beyond recovery: Understanding the postbereavement growth from companion animal los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75*(2), 103-123.

- Woo, S. A., & Kim, M. H. (2023). Pet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Mediation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26(1), 17-32.
- Wortman, C. B., & Boerner, K. (2007). Beyond the myths of coping with loss: Prevailing assumptions versus scientific evidence. In H.S. Friedman & R. C. Silver (Eds.) *Foundations of health psychology* (pp. 285-324). Oxford University Press.
- Wrobel, T. A., & Dye, A. L. (2003). Grieving pet death: Normative, gender, and attachment issue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47(4), 385-393.
- Zilcha-Mano, S., Mikulincer, M., & Shaver, P. R. (2011).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human-pet relationships: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pe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4), 345-357.
- Zilcha-Mano, S., Mikulincer, M., & Shaver, P. R. (2012). Pets as safe havens and secure bases: The moderating role of pe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5), 571-580.
- 원고접수: 2023.05.30
수정접수: 2023.08.05
게재확정: 2023.08.07